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

이 승 호*·박 미 진**

요약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일-생활 균형, 퇴근시간, 장시간 근로, 젠더

* 주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bab57@naver.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mijin1030@daum.net)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¹⁾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 매우 긴 수준이며,²⁾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일과 후의 생활시간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일과 후 생활시간이 부족하면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가족의 생산 및 재생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주은선, 2014: 8-12; Jacobs & Gerson, 2004). 가사와 돌봄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은 가족 구성원들의 친밀감과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결핍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여가시간의 결핍은 개인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삶의 주체로서의 재량을 상실해 자아를 소외시키며, 공동체 참여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영선, 2013: 16). 휴식과 수면 등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의 부족은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개인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과 후 생활시간의 부족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장시간 근로와 퇴근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에 주목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6시간 근무제가 시도되었고(Hunnicut, 1996), 최근 스웨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일보, 2015. 11. 29).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 의제로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하였으나(배규식, 2012: 128-129), 최근 들어 퇴근시간을 앞당겨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출판사에서는 2012년부터 6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회사 안팎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경향신문, 2015. 6. 19),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 달에 하루,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3. 28).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련 이슈들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에서도 일과 가족 사이

1) 김정경(2015)의 연구 등에서는 특정 시점을 지칭하는 의미로 ‘퇴근시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퇴근시간’을 사용하였다. ‘시간’에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의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시각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1.5배,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emp/hours-worked.htm>).

의 균형, 더 나아가서 일과 가족 및 여가 사이의 생활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특히, 퇴근시간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일과 후 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퇴근시간의 조정이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근로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다루었거나(배규식 외, 2013; 안주엽 외, 2015 등), 근로시간과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차승은, 2014; 김은지, 2011 등)들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퇴근시간이라는 특정 시점이 내포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포착해내지 못하여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³⁾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들이 퇴근시간에 따라 일과 후의 생활시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응답자가 10분 단위로 직접 자신의 행동을 기록한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일과 후 생활시간을 분석하므로, 퇴근시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시간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알려진 어린 자녀가 있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퇴근시간으로 인한 일과 후 생활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Craig & Mullan, 2010: 1344).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확산하고, 관련 논의가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2. 문헌검토

본 연구는 퇴근시간과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먼저 근로자의 퇴근시간 결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활시간의 변화 및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이론적 흐름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3)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평일 아침에는 출근 준비, 낮 시간대에는 근로활동을 하며, 비로소 저녁시간이 되어야 가사나 돌봄, 여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저녁 시간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개인의 재량이 비교적 큰 시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간대와 구별된다.

검토한다.

1)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생활시간은 시간 사용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Shank, 1986). 즉, 다수의 근로자가 초과근무에 종사하는 상황은 근로자 개인이 일과 후의 다른 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초과근무를 통한 추가 소득의 확보를 더 선호해서 발생한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일자리에서의 퇴근시간 결정에는 개별 근로자의 시간 선호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Jacobs & Gerson, 2004).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에 대한 제도적인 여건,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력 차이 등이 퇴근시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총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을 오래 할수록 고용주의 이익이 증가하므로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유인이 된다.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조세, 유급휴가와 같은 부가급여의 존재도 고용주로 하여금 기존 근로자에게 초과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게끔 작용할 수 있다(Schor, 1992: 53-60). 또한, 실업의 위험이나 승진의 제한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Schor, 1992: 132).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법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도 많아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쉽지 않다(이승현, 2009; 박은정, 2013; 배규식, 2013). 초과근무 관련 수당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고, 가산 임금 지급 시에 중복사유의 적용이 가능한 점 등의 제도적인 요인도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정형욱, 2006; 김승택, 2011).

국내 100개 기업 4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한상공회의소(2016: 3-4)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습관화된 야근'을 가장 심각한 기업문화로 꼽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비효율적 회의, 과도한 보고, 일방적 업무지시 등과 같은 요인들이 지목되었다.⁴⁾ 일부에서는 이러한 초과근무가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가 선택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김승택, 2005; 하상우, 2012), 장시간 근로가 저임금 직종뿐만 아니라 고임금 직종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배규식, 2012: 129-130). 또한 퇴근시간의 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의사 반영이 일반적이다(조윤기·배규한, 2001). 따라서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단 노동시간이 정해지면 특별한 상황

4) 응답자들은 일주일에 평균 2.3일을 야근하고 있었고, 주 3일 이상 야근을 하는 경우도 4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6).

이 없는 한 근로자가 일과 후의 일정에 따라 퇴근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장시간 근로는 필연적으로 퇴근시간의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의 변화 양상은 간단치 않다.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한준, 2011: 32). 여기서 3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과 후 생활시간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오후 6시에서 9시로 퇴근시간이 조정되면, 일과 후 친구들과 계획하고 있던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시간대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일과 후 생활의 상당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므로, 근로시간량과 함께 근로 시간대도 일-생활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배규식 외, 2013, Craig & Powell, 2011).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주로 저녁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유재언, 2016). 또한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침시간이 이르고, 요구되는 돌봄 시간의 양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퇴근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유자녀 가구의 가족공유시간 감소는 자녀의 성장이나 교육 측면에서 볼 때 그 피해나 후유증이 오래도록 지속될 우려가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퇴근시간의 연장은 여가 생활을 여지없이 개인화한다. 주로 타인과의 상호성에 기반을 둔 사회참여와 스포츠·문화 활동 등의 시간은 미리 약속된 특정시간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간대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대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일과 후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퇴근시간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일-생활 균형과 일과 후 생활시간 배분

서구에서는 일찍이 ‘일-가정 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을 주제로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는 임금노동과 가족과의 시간 사이의 균형이 주된 관심사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넘어서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⁵⁾을 위한 생활시간의 배분으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신경아, 2009; 박정열·손영미, 2014; 주은선, 2014; 차승은 외, 2015; Jacobs & Gerson, 2004). 두 논의의 기본 전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는 일 이외의 영역을 ‘가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룬다(김

5) 일-생활 균형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영국의 취업여성단체(Working Mother's Association)에서였으며,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박현미·이승협, 2009: 9).

주희, 2012: 21).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노동시간과 사적영역(private sphere)의 가족시간은 한 쪽의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시간이 줄어드는, 단선적이고 상호교환적인 구도로 간주된다. 반면 ‘일-생활 균형’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는 생활 영역을 가족과의 시간 이외에도 자유시간, 여가생활, 자기계발 및 학습 등과 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다각도에서 바라본다는 특징을 지닌다(박정열·손영미, 2014; Hyman & Summer, 2004). 또한 생활의 하위영역마다 각각의 욕구(needs)가 존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활시간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Gershuny, 2000). 200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 이외의 영역을 가족의 범주에서만 접근하는 일-가정 양립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일-생활 균형의 관점에 기초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박예송·박지혜, 2013).

일-생활 균형 논의는 근로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양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일과 후 생활시간이 하위범주 내에서도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일과 후 생활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시간 하위범주 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일과 후 생활시간의 전체적인 양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일-생활 균형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므로, 균형 지점은 시대, 장소 및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Guest, 2002; 장수정, 2007). 나아가 근로시간의 길이나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형태도 일과 후 생활의 균형을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절대적인 균형점을 타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근로시간이 일-생활 균형의 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여가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권장할만한 가사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 규명하기란 쉽지 않은 반면, 근로시간이 어떠한지, 혹은 권장할만한 가사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해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⁶⁾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사회적으로 합의된 표준근무시간이라고 가정하며,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과 후의 총 생활시간이 부족하여,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것들을 달성해야 하는 시간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시간대에 일을 하고 있다면, 일과 후의 생활범주들 간 균형을

6)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R116 조항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있다(ILO 홈페이지,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12100:P12100_INSTRUMENT_ID:312454:NO).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과 생활 양쪽 모두를 만족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퇴근이 이루어져야만, 이후 총 생활시간 내에서 가족과의 시간, 여가시간, 개인유지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따라서 퇴근시간의 조정을 통해 표준적인 시간대에서의 적절한 일과 후 생활시간 양을 확보하는 것은 균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일과 후 생활시간의 증가만으로 바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찍 퇴근을 하더라도,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일과 후 생활시간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영역에서의 시간 사용이 집중된다면 균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혹은 어떠한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표적인 영향 요인으로 젠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근로자의 젠더는 생활시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Hochschild & Machung, 1989; Bittman, 1999; Crompton, 2006; Coltrane & Adams, 2008; Craig & Mullan, 2010; OECD, 2013). 남녀의 시간사용 차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중 ‘젠더 이데올로기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급노동, 여성은 무급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급노동이 여성의 책임이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Brines, 1994; Coltrane, 2000; Greenstein, 2000).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일과 후 생활시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주들보다 가사 및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퇴근시간과 생활시간의 배분이 젠더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는 이른 시간대에 퇴근을 하더라도,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 및 돌봄에만 사용하고 개인 회복을 위한 여가 등에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여 일-생활 균형이 저해될 수 있다.

반면,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은 유급 및 무급노동시간에 비해서는 사회적 요구가 앞서지 않으며, 돌봄 시간과 같이 자녀의 요구가 뚜렷하지 않기에 시간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주은선, 2014: 14). 따라서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의 역할이 여성에게 더 무겁게 지워진 상황에서 여성의 여가시간은 남성에 비해 보다 잔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여가시간이 긴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은선, 2014; 통계청, 2016: 48),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비해 퇴근시간의 단축으로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을 특히 더 늘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퇴근시간의 조정이 젠더에 따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각 영역에 배분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향이 실제로 일과 후 생활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로 드러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에서 살펴본 젠더 차이와 생활시간 배분의 관계도, 퇴근시간의 연관 속에서 분석될 경우 젠더로 인한 차이의 방향이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3) 국내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사회제도 및 문화적 요소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⁷⁾ 장시간 근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퇴근시간과 생활시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과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와 근로시간과 하위범주 생활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후 젠더의 시간사용 차이를 다룬 연구를 확인한다.

먼저, 근로시간과 전반적인 일-생활 균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근로시간이 길수록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일부 연구들이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배규식 외(2013)는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증가함을 밝혔고, 정우진·김강식(2014)은 초과근무가 일-가정 갈등과 일-여가 갈등을 높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안주엽 외(2015)는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는데, 총 근로시간이 주당 41.5시간일 때 행복도가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낮추고 일-생활 관련 갈등을 초래한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하지만 하위범주별 구체적인 생활시간의 구성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하위범주 생활시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조미라·윤수경(2014)과 이창순(2014)에서 근로시간과 가사시간이 부적 관계임을 밝혔고, 김소영(2016)도 근로시간의 증가가 돌봄시간의 감소로 연결됨을 논하였다.⁸⁾ 근로시간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홍석범(2013)은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적극적 여가시간이 증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고, 박민정·윤소영(2013)에서도 주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이 문화예술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를 즐기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직장의 근로자들은 오락·휴식 등의 소극적 여가를 즐길 확

7) 퇴근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이길제, 2011), 이들의 대부분은 행정학 및 도시학을 기반으로 통근시간의 효과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8) 가사 및 돌봄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공유시간을 살펴본 유재언(2016)에서는 평일 오후 5시대에 가족과 함께 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으나, 오후 6-7시대까지 점차 늘어,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가족과 함께 주 행동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퇴근시간을 독립변수로 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높은 유사성을 띄지만 종속변수를 가족공유시간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진욱·고은주(2015)는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유지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근로시간과 구체적인 하위범주 생활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나, 총 생활시간 내에서의 역동을 살펴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시간의 특성상 각 하위범주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각각을 분리해내어 분석을 하면 결과 해석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김은지(2011)는 근로시간과 생활시간의 관계를 특정 범주가 아닌 총 생활시간 내에서의 역동을 파악하고 있어 한걸음 더 나아간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시간압박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개인유지시간만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감소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른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치된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의 감소가 여가시간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며, 근로시간과 근로 외 생활시간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작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탐색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사용의 주요한 구조화 요인인 젠더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문금(2005)은 1999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성별 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긴 유급노동시간을 보였지만, 유급과 무급노동시간을 합치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승미·이현아(2011)도 평일 남성의 경우 유급 및 무급노동시간이 9시간 48분, 여성은 10시간 41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53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임금근로자 여성의 이중역할부담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수정·김은지(2007)는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진욱·고은주(2015)는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여가·개인관리·수면시간)압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는데, 맞벌이 여성은 개인유지시간과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분명해졌다. 반면, 남성들은 대체로 수면시간의 결핍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종합하면,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합친 전체 노동시간은 여성이 더 높다는 점은 대체로 일관되게 도출되고 있으나, 각 하위범주별의 시간사용에 대해서는 방향이 불분명하고, 퇴근시간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은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1-1)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평균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 1-2)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퇴근 시간대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생활시간의 관계는 젠더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소개 및 자료의 재구성

이 연구의 목적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에 따른 평일 일과 후의 생활시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을 10분 단위로 직접 시간일지에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조사되며, 개인별로 정해진 요일에 2일씩 일지를 작성한다.⁹⁾ 이 조사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14년의 자료가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크게 시간량 자료와 시간대 자료로 구분되는데, 시간량 자료는 하루 24시간 동안 응답자가 특정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고, 시간대 자료는 응답자가 특정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응답자가 기입한 시간일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 시간대 자료라면, 시간량 자료는 이를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일지를 종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간량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일의 일과 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제한된 생활시간만을 다루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시간량 자료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대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근로자가 퇴근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시간 사이에 각각의 행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제한된 범위의 시간량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개인마다 퇴근시간과 취침시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정해진 시간 범위에서의 시간량이 아닌,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여 시간량 자료가 포함하는 시간 범위를 차등적으로 구성하였다.¹⁰⁾ 둘째는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

9) 사전에 분류되어 있는 9개 범주 139개의 행동 분류 중에서 응답자가 직접 실제 자신의 행동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시간일지에 기입하므로, 다른 어떤 자료보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trane, 2000: 1217).

10) 예컨대 17시에 퇴근하여 22시에 잠든 근로자는 5시간의 시간대를 포함하고, 19시에 퇴근하여 23시에 잠든 근로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생활시간조사는 0시부터 24시까지의 범위로 하루를 정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간일지로는 자정이 지난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저자들은 개인별 2일로 구분되어 있는 시간일지를 연결하여 전체 48시간의 시간일지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연결된 시간일지는 자정 이후의 시점 외에 다음 날의 행동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응답자가 일지를 작성한 요일에 따라 평일과 주말 일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여, 퇴근 시점 기준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작성된 일지만을 활용한다. 첫째, 주말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평일과 달리 유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퇴근 이후의 생활시간과 퇴근시간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¹¹⁾ 둘째, 이 연구가 전형적인 평일의 일과 후 생활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조사 요일은 5개 집단(일-월, 화-수, 목-금, 금-토, 토-일)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화-수, 목-금, 금-토에 일지를 작성한 3개 집단이 첫 날에 평일 근로를 포함할 수 있다.¹²⁾ 그런데 금요일에 퇴근을 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으며, 휴일 전날의 저녁시간은 주중의 다른 요일과는 다른 일정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토에 작성된 일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분석 자료는 전형적인 평일의 퇴근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특정 시간대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의 행동으로 인한 분석결과의 편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정 이후의 생활시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퇴근이 아주 늦은 근로자까지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2) 분석대상의 설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에 10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이다. 분석대상을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한정된 것은 다른 고용지위를 가진 집단에 비해서,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이 퇴근시간에 따른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나 고용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퇴근시간의 조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일과 후의

자는 4시간의 시간대만 포함하는 방식이다.

11) 예컨대 퇴근이 빨라서 여행을 간 것인지, 여행을 가기 위해 퇴근을 서두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은 주말이 아닌 평일의 퇴근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일의 퇴근시간은 주말에 비해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12) 둘째 날의 평일 근로 일지를 제외한 것은 다음 날 오전의 출근 여부와 24시 이후의 생활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일정에 따라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따라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특정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빠른 것인지 늦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해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로 분석대상을 제한한 것은, 어린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가구가 생활시간의 불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Craig & Mullan, 2010: 1344).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으로 가사 이외에 돌봄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반면, 아동의 부모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삶에서 직업경력을 본격적으로 쌓아가야 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소득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과, 자신의 행복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압박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퇴근시간의 차이에 따른 생활시간의 변화 양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금요일의 일과 후 시간이 전형적인 평일과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일지를 분석에서 제외된 것처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작성된 일지 중에서도 평일의 일과가 확인된 근로자만을 분석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오전 출근과 업무 후 퇴근이 확인되고,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출근을 한 것까지가 확인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에는 퇴근 당일에 다른 특별한 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다음 날 휴가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퇴근 당일의 일과 후 생활시간이 전형적인 평일과는 상이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⁴⁾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화·수요일과 목·금요일에 일지를 작성한 전일제 임금근로자 중에서, 10세 미만의 아동이 있고, 당일의 출퇴근과 다음 날의 출근이 확인된 근로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는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집단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최종 분석에는 700명의 시간일지가 포함되며, 기본 분석단위는 개인이다.¹⁵⁾ 모든 분석에는 생활시간조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가중치를 적용한다.

13) 아동의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분석 자료가 자녀의 돌봄 시간을 10세 이상과 10세 미만에 대한 시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14) 이 과정에서 전체 전일제 근로자의 약 4%가 제외되었다.

15) 분석단위는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의 분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퇴근시간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근로자 자신의 생활시간이라는 점에서 개인 단위 분석이 가족 단위 분석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과 후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 간의 관계를 전체 및 퇴근 시간대별로 분석하며, 그러한 관계가 근로자의 젠더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 번째 분석방법은 집단 간 종속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ANOVA이다. 이 방법에서는 분석 대상을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별로 일과 후의 생활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17시에서 19시 사이에 퇴근하는 경우를 정시 퇴근 집단(B)으로 정의하고, 이보다 이른 시간(15-17시)에 퇴근하는 집단(A)과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C와 D)으로 구분하며,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은 다시 19시와 21시 30분 사이에 퇴근하는 집단(C)과 21시 30분과 24시 사이에 퇴근하는 집단(D)으로 구분하였다.¹⁶⁾ 일·생활의 균형은 고정된 시간 배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이 현 시대 한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표준적인 생활패턴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 집단과 다른 하위집단 간의 생활시간 비교를 통해서 퇴근시간에 따른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ANOVA의 주 목적은 집단별 하위범주의 시간 사용량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평일 일과 후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퇴근시간에 따라 그러한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예컨대 비교적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한 집단이 정시에 퇴근한 집단에 비해서 어떤 생활범주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지, 야근 후에 퇴근한 집단은 어떤 범주의 시간을 줄여가며 일을 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퇴근시간의 조정이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시간 구성에 가져올 변화의 내용과 변화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분석방법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이다.¹⁷⁾ ANOVA는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생활시간에서 가족 단위의 시간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의 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비근로 구성원의 일과 후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 비근로 구성원의 생활시간 합산이 앞서 분석 대상을 제한한 조치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16) 정시 퇴근 집단의 기준을 18시±1시간으로 한 것은 가장 많은 근로자가 퇴근한 시점이 18시이기 때문이고, 21시 30분을 기준으로 야근 집단을 구분한 것은 어린 자녀의 취침시간이 10시 전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17) Zellner(1962)가 이 분석을 SUR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러 회귀모형들이 겹으로 보기에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후 학자에 따라서 generalized multivariate regression(Press, 1972)이나 general linear multivariate model(Box & Tiao, 1973)로 불리기도 했다(Percy, 1992에서 재인용).

서,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가 퇴근시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회귀모형에서의 독립변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개인의 퇴근시간이며, 종속변수는 개별 생활범주에 사용한 시간량이다. 회귀분석은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 간의 평균적인 관계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근 시간대로 구분한 하위집단별 분석을 통해서, 퇴근 시간과 범주별 시간의 평균적인 관계가 퇴근 시간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본 모형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젠더의 조절효과 여부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조절효과는 기본 모형과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 사이의 모형적합도 변화량 및 추가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통해 판단한다(Aiken & West, 1991; 주은선, 2014에서 재인용). 동일 가구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회귀분석에는 가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통해서 회귀계수의 유의도를 확인한다.

그런데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범주들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서 배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으로는 분석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추정치를 산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Zellner, 1962: 348-349; Di Nallo, 2015: 27).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수와 회귀모형의 오차항 간 내생성(endogeneity) 및 각 회귀모형 오차항들 사이의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가 이러한 편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Di Nallo, 2015: 27; 변금선·허용창, 2014: 190; 조성호, 2016: 61). 예컨대 생활범주별 시간량의 관계를 다루는 회귀모형의 오차항에는 노동을 비롯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 능력 등의 미관측 요인들(unobserved factors)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다른 회귀식의 오차항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시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한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바 있는 SUR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다수의 회귀모형을 동시에 추정하면서 모형들 간 오차항들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며(Greene, 2005: 340-351), 이를 통해서 OLS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고(Kimmel & Connelly, 2007: 650), 생활시간 범주들 간의 관계에 의한 내생성 문제도 줄일 수 있다(Di Nallo, 2015: 27).

이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NOVA를 통해서, 퇴근시간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시간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SUR을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퇴근시간과 각각의 생활범주별 시간량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

인하고, 퇴근 시간대별 차이 및 조절요인의 영향 여부를 검토한다. ANOVA에서는 하위집단별 생활시간의 구성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다중회귀분석은 변수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분석방법은 서로 보완적인 의미를 가진다.

4) 주요 변수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별 시간량이다. 일과 후의 생활은 일-생활 균형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5개의 범주로 구분하며,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동분류표를 참고하여 각 범주에서 포함하는 행동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 쇼핑 등의 시간을 포함하는 가사시간,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시간을 의미하는 돌봄 시간, 자원 봉사, 지역사회 참여,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 및 문화,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적극적 여가시간, TV 보거나 인터넷 정보 검색, 아무 것도 안하고 쉬는 시간 등으로 구성된 소극적 여가시간, 식사와 건강 관리 등의 개인유지시간으로 구분한다.¹⁸⁾ 생활범주별 시간량을 측정하는 시간대는 개별 근로자의 퇴근시간부터 취침 전까지이다.¹⁹⁾

독립변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이다. 생활시간조사의 시간일지는 응답자의 행동을 10분 간격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퇴근시간도 10분을 단위로 측정한다. 퇴근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퇴근을 목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측정한다.²⁰⁾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구 특성들로 구성한다. 개인 특성으로는 연령과 젠더,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 및 건강 상태와 분석당일의 출근시간을 포함하고, 가구 특성으로는 소득수준, 맞벌이 여부, 6세 미만 자녀 여부, 가구규모, 거주 지역 및 주거 형태 등을 포함한다. 개인 특성 변수들은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의 차이와 가족, 여가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 차이 등의 영향을 반영하고(Ettner, 1996; 유소이·최윤지, 2002; 김진욱, 2005; 성지미, 2006; 김수정·김은지, 2007; 주은선, 2014), 가구 특성 변수들은 개별 가구들이 처해 있는 여건의 차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이기영 외, 2006;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배호중,

18) 이상의 5가지 생활시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이동시간 및 기타 시간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19) 그런데 개인의 취침시간은 선잠을 자거나 중간에 깨는 사례가 많아서 측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생활시간조사가 일과 중의 낮잠과 한 밤의 취침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이어지는 수면이 시작되는 시간을 취침시간으로 측정한다. 2시간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긴 하지만,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다른 활동에 임하는 사례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 비슷한 방법으로, 퇴근 당일과 다음 날의 오전 출근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출근을 위한 이동이 끝나는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측정하였다.

2015). 주요 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 변수	범주별 생활 시간	가사시간	일과 후에 음식준비, 청소, 쇼핑 등 가사에 사용한 시간의 합
		돌봄시간	일과 후에 가족 및 가구원을 돌보는 데 사용한 시간의 합
		적극적 여가시간	일과 후에 자원봉사, 학습, 문화 활동 등 적극적 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합
		소극적 여가시간	일과 후에 TV 시청, 독서, 휴식 등 소극적 여가에 사용한 시간의 합
		개인유지시간	일과 후에 수면, 식사, 건강관리 및 기타 개인유지에 사용한 시간의 합
독립 변수	퇴근시간	주된 일자리에서 퇴근을 목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시간 이른 퇴근(A): 15-17시 퇴근/ 정시퇴근(B): 17-19시 퇴근/ 늦은 퇴근(C): 19-21:30 퇴근/ 야근(D): 21:30-24시 퇴근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연령	만 나이
		젠더	여성=1/ 남성=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ref)/ 전문대 졸업 이하/ 대학교 이상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가구주 아님=0
		건강	나쁜 편, 매우 나쁨=1/ 보통, 좋은 편, 매우 좋음=0
		출근시간	출근을 목적으로 이동을 시작하여 주된 일자리에 도착한 시간
	가구 특성	가구소득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 초과=0
		자녀연령	6세 미만 자녀가 있음=1/ 없음=0
		가구유형	맞벌이=1/ 외벌이=0
		가구규모	총 가구원 수
		거주지역	농어촌(읍부 거주)=1/ 도시(동부 거주)=0
주거형태	비자가=1/ 자가=0		

4. 분석결과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이다. 퇴근시간에 따른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앞서,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전체 분석대상의 개인 특성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24.0%로 남성에 비해 낮았고, 평균 연령이 37.6세로 비교적 젊은 근로자가 많았으며, 학력 비율에서는 절반가량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비율이 71.5%로 높은 편이었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 분석대상의 8.2%에 불과했다. 평균 출근시간은 8시 10분으로 표준 근무 시작시간인 9시보다 빨랐다. 이러한 특성들은 3-4대의 고학력 남성들이 분석대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은 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최종호, 2016),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고, 당일 실제 근로를 한 전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석대상이 다른 근로자 집단에 비해서 젊고, 건강한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전체	퇴근시간 집단별 차이				차이 검증 (F 값)	
			집단 A (15-17)	집단 B (17-19)	집단 C (19-21:30)	집단 D (21:30-24)		
개인 특성	여성	24.0	58.6	26.0	12.9	5.3	77.77 ***	
	연령(평균, 세)	37.6	37.3	37.8	38.2	36.6	1.58 *	
	교육 수준	고등학교 이하	21.5	17.0	22.5	22.6	20.4	1.06
		전문대	28.6	38.3	27.5	29.1	25.1	
		대학교 이상	49.9	44.7	50.0	48.4	54.5	
	가구주	71.5	45.8	68.8	83.2	85.7	43.05 ***	
	건강 취약	8.2	6.5	6.3	11.1	12.7	5.53 *	
	출근시간(평균, 시간)	08:10	08:01	08:12	07:58	08:19	1.56 *	
가구 특성	저소득	12.9	9.5	13.0	13.1	14.6	0.77	
	맞벌이	56.3	75.9	58.2	49.6	43.6	21.42 ***	
	6세 미만 자녀 있음	70.4	69.9	69.7	67.7	75.7	0.76	
	가구규모(평균, 명)	3.9	4.0	3.9	4.0	4.0	1.57	
	농어촌 지역	11.9	5.9	13.4	14.2	8.6	0.00	
	비자가 거주	42.7	38.7	43.4	44.9	40.8	0.02	
N(명, %)		700 (100.0)	84 (12.0)	391 (55.9)	116 (16.6)	109 (15.6)		

주) ***: p<.001, **: p<.01, *: p<.05, †: p<.10

전체 분석대상의 가구 특성에서는, 가구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비율이 12.9%로 비교적 적었고,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였으며, 약 70%의 가구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3.9명으로 전체 전일제 근로자 평균보다 많았다.²¹⁾ 분석대상 가구의 대부분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의 가구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구 특성의 결과 역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4개의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분석대상의 약 55.9%가 비교적 정시에 퇴근(B)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시 이전에 퇴근(A)을 한 근로자는 전체의 12.0%였고, 비교적 짧은 초과근무 후에 퇴근(C)한 비율은 16.6%, 상대적으로 긴 야근 후에 퇴근(D)을 한 비율도 15.6%나 되었다. 집단별 개인 특성을 보면, 퇴근 시간이 빠른 집단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퇴근이 가장 빠른 집단A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의 경우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퇴근이 가장 늦은 집단D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은 모든 집단에서 절반가량의 근로자가 대학교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주의 비율은 퇴근이 늦은 집단일수록 높았으며, 가장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A에서는 가구원이 가구주보다 더 많았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는, 퇴근시간이 늦은 집단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집단B와 C 사이의 차이가 집단C와 D 간 차이보다 훨씬 컸다. 이는 초과근무의 길이보다 초과근무의 여부가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집단별 출근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퇴근시간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집단별 가구 특성에서는,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A에서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약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퇴근시간이 빠른 집단일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았는데, 앞서 개인 특성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과 같이 고려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집단A에는 맞벌이를 하는 비가구주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과 가구규모, 거주 지역 및 자가 여부의 비율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2) 집단별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평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집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는 ANOVA의 결과를 통해서, 퇴근시간으로 구분한 하위집

21) 전체 전일제 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구규모는 3.1명이었다.

단별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비교적 정시에 퇴근을 한 집단B의 생활시간 구성이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표준적인 생활시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집단B의 생활시간을 기준 삼아서 다른 집단의 생활시간 구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ANOVA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퇴근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의 일과 후 총 생활 시간량의 차이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생활 시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교적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B는 평균적으로 18시 12분에 퇴근을 해서 23시 7분쯤 잠자리에 들며, 약 4시간 54분 정도의 일과 후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A의 경우, 집단B에 비해 퇴근시간은 1시간 42분가량 빠르는데 비해서 취침시간은 8분밖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집단A가 이른 퇴근으로 확보한 시간의 대부분이 일과 후 생활에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C와 D에서는 집단B에 비해 일과 후 총 생활시간이 각각 1시간 14분, 2시간 24분가량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서는 퇴근의 지연으로 인해 줄어든 생활시간의 일부를 취침의 지연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보인다.²²⁾ 이와 같은 집단 간 총 생활시간의 차이는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일과 후 생활의 시간량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3] 집단별 일과 후 생활시간의 차이(ANOVA 결과)

(단위: 분, %)

	집단 A (15-17)	집단 B (17-19)	집단 C (19-21:30)	집단 D (21:30-24)	차이 검증 (F 값)	사후 검증
총 생활시간	389.0	294.4	220.7	150.0	325.63***	A/B/C/D
퇴근시간	16:30	18:12	19:45	21:32	-	
취침시간	22:59	23:07	23:26	24:02	-	
가사	61.8 (15.9)	25.4 (8.6)	8.3 (3.8)	4.7 (3.1)	49.79***	A/B/CD
돌봄	73.0 (18.8)	37.6 (12.8)	22.1 (10.0)	8.0 (5.3)	59.16***	A/B/C/D
적극적 여가	36.9 (9.5)	30.3 (10.3)	12.3 (5.6)	11.7 (7.8)	11.61***	AB/CD
소극적 여가	70.8 (18.2)	66.8 (22.7)	63.4 (28.7)	32.1 (21.4)	14.77***	ABC/D
개인유지	73.9 (19.0)	63.2 (21.5)	49.9 (22.6)	30.4 (20.3)	66.89***	A/B/C/D

주 1) 괄호는 일과 후의 총 생활시간 대비 해당 범주의 생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이유는 이동시간 등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임.

2)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3)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로 표기하였음.

22) 앞서 퇴근시간이 늦은 집단의 근로자가 건강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직접적인 피로 외에도 수면시간의 부족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퇴근시간에 가깝게 퇴근하는 집단B의 생활범주별 구성을 통해서, 현 시대에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점을 추정한다. 이들 집단은 약 5시간의 일과 후 생활 중에서 1시간가량을 가사와 돌봄 등 가족을 위한 행동에 소요하고 있다. 자기계발이나 문화 활동, TV 시청, 휴식 등의 각종 여가에는 1시간 30여분을 보냈으며, 개인유지에는 1시간 정도를 사용하였다.²³⁾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정시에 퇴근한 전일제 근로자는 여가에 1시간 30분, 가족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가사보다는 돌봄에,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생활시간 구성이 해당 범주에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에 퇴근을 한 전일제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후 생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B와 다른 집단들 간 생활시간 구성의 비교를 통해서, 퇴근시간의 차이와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집단A의 생활시간 구성은 이른 퇴근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생활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집단C와 D의 생활시간 구성은 퇴근이 늦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어떤 범주의 생활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A는 집단B에 비해 모든 생활시간 범주에서 절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지만, 가사와 돌봄 등 가족과 관련된 범주의 시간량에서 더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었다. 추가로 확보한 94.6분의 생활시간 중에서 71.8분이 가사와 돌봄의 범주에서 사용되었는데, 비중으로는 75.9%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여가의 두 범주에 추가로 할당된 시간은 합쳐서 10.6분에 그쳤고, 집단B와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유지 시간은 집단B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차이의 정도는 10.7분으로 비교적 작았다. 따라서 집단A는 이른 퇴근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시에 퇴근한 근로자들이더라도 가족과 관련된 생활범주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퇴근이 늦은 집단C, D의 생활시간 구성에서는 범주별로 상이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와 쇼핑, 식사 준비 등의 시간을 포함하는 가사 시간은 집단C에서 이미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집단C와 D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시간은 집단C와 D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는 등 모든 집단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가시간의 경우, 적극적 여가는 집단B와 C 사이에 18분가량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집단C와 D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소극적 여가에서는 집단B와 C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집단D에서 비교적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개인유지 시간은 돌봄 시간과 유사하게 모든 집단 간 격차가 통

23) 일과 후 총 생활시간에서 나머지 1시간 30여분은 퇴근 등 각종 이동시간 및 기타 시간이다.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초과근무 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 비해 가사와 적극적 여가 관련 범주의 생활시간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늦은 시간까지 야근 후에 퇴근하는 근로자는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범주의 생활시간까지 더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는 근로자의 퇴근 시간대에 따라 범주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3)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

그러나 ANOVA의 분석결과는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퇴근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앞서 [표 2]에서 보듯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근로자와 야근 후에 퇴근하는 근로자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집단 간 평균 비교 방식으로는 분석결과에서의 차이가 퇴근시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과 후 생활시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SUR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다섯 가지 모든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하였고, 독립성 검증 결과 모형의 잔차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여 SUR을 적용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에서는, 다섯 가지 생활범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확인되었다($p < .001$). 회귀계수의 크기를 보면, 소극적 여가(-0.199)의 변화 정도가 가장 컸고, 그 뒤로 개인유지(-0.174), 돌봄(-0.169), 적극적 여가(-0.131), 가사(-0.091)의 순서였다. 이것은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10분 지연되면 일과 후에 소극적 여가에 들이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감소하고, 가사 시간은 약 0.9분 정도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퇴근시간이 10분 당겨지면 일과 후 생활에서 소극적 여가시간이 약 2.0분, 가사 시간이 약 0.9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해당 범주에 사용한 시간량의 절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극적 여가의 시간량 감소 정도가 가장 큰 것은 해당 범주가 일과 후 생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표 3]에서 집단B의 생활시간 구성을 보면, 소극적 여가는 총 일과 후 생활시간의 약 22.7%를 차지하고 있다. -0.199의 회귀계수는 추가로 확보된 생활시간의 약 19.9%만을 소극적 여가에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퇴근시간이 빨라질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소극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²⁴⁾

24) 같은 방식으로 다른 범주들에서 집단B의 생활시간 구성 비율과 SUR 회귀계수 값을 비교하면, 퇴근시간이 빨라질수록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시간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유지 시간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 전체 표본 대상 SUR 분석결과

	가사	돌봄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개인유지
퇴근시간	-0.091 *** (0.015)	-0.169 *** (0.015)	-0.131 *** (0.020)	-0.199 *** (0.024)	-0.174 *** (0.011)
연령	-0.002 (0.034)	-0.068 * (0.027)	-0.060 † (0.037)	0.063 (0.046)	-0.002 (0.020)
여성	5.119 *** (0.504)	2.419 *** (0.618)	-2.686 *** (0.764)	-4.072 *** (0.898)	-1.119 ** (0.415)
전문대	-0.702 (0.432)	0.889 * (0.368)	0.184 (0.546)	-0.723 (0.642)	-0.110 (0.278)
대학교 이상	-0.375 (0.386)	0.833 * (0.352)	0.346 (0.465)	-1.059 † (0.611)	0.107 (0.266)
가구주	-0.010 (0.440)	0.816 (0.556)	-1.234 † (0.713)	-0.003 (0.801)	-0.037 (0.362)
건강 취약	-0.004 (0.451)	0.702 (0.490)	-0.548 (0.434)	0.143 (0.642)	0.508 (0.389)
출근시간	0.033 (0.029)	0.083 ** (0.028)	-0.012 (0.041)	0.075 (0.048)	0.047 * (0.022)
저소득	-0.125 (0.322)	-0.173 (0.408)	-0.771 (0.606)	0.310 (0.666)	0.225 (0.370)
맞벌이	0.401 † (0.239)	0.179 (0.305)	-1.054 * (0.424)	-0.040 (0.486)	-0.583 * (0.239)
6세 미만 자녀	-0.075 (0.337)	1.496 *** (0.320)	-0.997 * (0.391)	-1.065 * (0.505)	0.006 (0.252)
가구규모	-0.039 (0.158)	0.038 (0.164)	-0.114 (0.188)	0.234 (0.259)	-0.058 (0.115)
농어촌	0.429 (0.324)	0.020 (0.322)	-0.034 (0.579)	-0.379 (0.555)	0.318 (0.273)
비자가	0.237 (0.245)	0.090 (0.273)	0.199 (0.362)	-0.862 † (0.449)	0.032 (0.215)
상수	10.080 *** (2.994)	17.725 *** (2.561)	23.243 *** (4.102)	24.418 *** (4.303)	23.819 *** (1.867)
R^2	0.502	0.326	0.112	0.187	0.300
chi^2	704.25 ***	338.64 ***	88.42 ***	160.96 ***	293.54 ***
독립성 ¹⁾			241.21 ***		
N			700		

주 1) Breusch-Pagan test of independence: $\text{chi}^2(10)$

2) 괄호는 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범주별 생활시간에 대한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들의 영향은 대체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와 돌봄 등 가족 관련 범주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반면, 여가나 개인유지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는 퇴근 후에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적극적 여가나 개인유지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6세 미만인 가구의 근로자는 여가를 줄여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학력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여부와 주거형태는 여가 관련 범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나 건강, 가구규모 및 거주지역 등의 변수는 모든 범주의 생활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²⁵⁾

그런데 앞서 ANOVA 결과에서도 살펴봤듯이,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는 시간대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근로자는 여가보다 가사와 돌봄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초과근무 후에 퇴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대에 따라서 주로 감소하는 생활시간 범주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각각 SUR 분석을 실시하여,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가 퇴근 시간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의 [표 5]는 지면의 제한을 고려하여 퇴근시간 변수의 회귀계수 관련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네 모형 모두 [표 4]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표 5] 집단별 SUR 분석결과

	가사	돌봄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개인유지
집단 A (15-17)	-0.420 ** (0.149)	-0.213 (0.169)	-0.632 *** (0.175)	-0.154 (0.167)	-0.096 (0.104)
집단 B (17-19)	-0.091 (0.059)	-0.225 ** (0.077)	-0.125 (0.097)	-0.284 ** (0.104)	-0.226 *** (0.046)
집단 C (19-21:30)	-0.071 (0.058)	-0.106 (0.084)	-0.043 (0.094)	-0.350 † (0.201)	-0.352 ** (0.111)
집단 D (21:30-24)	-0.055 ** (0.020)	-0.099 *** (0.031)	-0.0002 (0.038)	-0.237 *** (0.052)	-0.079 * (0.036)

주 1) [표 4]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였지만, 지면을 고려하여 퇴근시간 변수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유의수준만을 제시하였음.

2) 괄호는 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 p<.001, **: p<.01, *: p<.05, †: p<.10

2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전일제 임금근로자로 한정되어 다른 연구에 비해 변량이 매우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변수의 경우에는 생활시간조사의 소득 변수가 서열변수로 구성되어 측정오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작용했을 수 있다.

집단별 SUR 분석결과에서는 생활시간 범주별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가사 시간은 집단A에서 퇴근시간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집단B와 C에서는 퇴근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다가, 집단D에서 다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 관련 행동이 주로 저녁 이전의 시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른 시간에 퇴근한 근로자는 쇼핑이나 저녁식사 준비, 집안 정리 등을 직접 챙길 수 있는 반면, 늦게 퇴근한 근로자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거나, 관련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돌봄 시간의 범주는 집단B에서 퇴근시간에 따른 감소 정도가 더 컸고, 가사에 비해 집단별 회귀계수의 차이가 적었다. 이는 가사와 관련된 행동이 저녁식사 이전까지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돌봄 관련 행동은 비교적 넓은 시간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가 관련 두 범주는 완전히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적극적 여가시간은 집단A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부적관계를 보였고, 퇴근시간이 늦은 집단일수록 회귀계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적극적 여가 관련 행동이 주로 저녁 전까지의 시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소극적 여가는 집단A 이외의 집단에서만 부적관계가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에서 회귀계수 값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소극적 여가가 주로 저녁식사 이후의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유지 시간도 소극적 여가와 유사하게 집단B와 C, D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관계가 확인되었다. 집단A에서 퇴근시간과의 부적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이른 시간에 퇴근한 근로자들이 충분한 수준의 개인유지 시간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저녁 이후로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들은 개인유지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도 줄이기 시작하며, 그러한 감소 정도는 집단C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개인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개인유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집단D에서 퇴근시간과의 부적관계가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생산성 저하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집단별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과의 시간 내에서도 가사와 돌봄의 양상이 다르고, 여가시간 내에서도 여가의 내용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과의 시간, 여가시간 및 개인유지시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선행연구들의 논의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대에 따라서 퇴근시간과 부적관계를 가지는 생활시간 범주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퇴근시간 조정 정책들이 시간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늦은 시간까지의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적극적 여가 시간 보다는 소극적 여가와 개인유지 관련 행동을 주로 늘릴 것이다. 반면, 정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변화

는 근로자의 일과 후에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 관련 행동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4) 젠더의 조절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가 근로자의 젠더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다음의 [표 6]은 앞에서의 회귀모형에 젠더와 퇴근시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형을 SUR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퇴근시간과 젠더 더미의 상호작용항은 가사와 돌봄, 개인유지의 세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적합도 변화가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도 가사와 돌봄, 개인유지의 세 범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가의 두 범주에서는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젠더의 조절효과가 가사와 돌봄, 개인유지의 세 범주에서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사와 돌봄의 가족 관련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모두 여성(가사 $-0.250 = -0.055 - 0.195$, 돌봄 $-0.234 = -0.154 - 0.080$)이 남성(가사 -0.055 , 돌봄 -0.154)에 비해 퇴근시간과 생활 시간량 간의 부적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사 모형에서는 퇴근시간의 회귀계수보다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훨씬 컸지만, 돌봄 모형에서는 반대로 퇴근시간의 회귀계수가 더 컸다. 이는 젠더로 인한 퇴근시간과 생활시간 관계의 차이가 돌봄보다 가사 관련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젠더 더미 변수의 회귀계수 값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사와 돌봄 범주 모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가사 26.177, 돌봄 11.107). 여성에서 퇴근시간과 범주별 시간량 간의 부적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퇴근시간이 여성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해당 범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젠더 더미의 회귀계수가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젠더로 인한 생활시간 차이를 단순히 퇴근시간의 조정으로 상쇄하려면 남성이 여성보다 130분 이상 더 빨리 퇴근해야 한다($26.177/0.195 \approx 134.2$, $11.107/0.080 \approx 138.8$). 따라서 [표 6]의 결과는 가족 관련 생활범주의 시간이 젠더의 측면에서 매우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차이가 퇴근시간의 조정만으로 극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같이 보여준다.

[표 6] 젠더의 조절효과

	가사	돌봄	적극적 여가	소극적 여가	개인유지
퇴근시간	-0.055 *** (0.014)	-0.154 *** (0.016)	-0.138 *** (0.024)	-0.212 *** (0.026)	-0.185 *** (0.012)
여성	26.177 *** (5.993)	11.107 * (5.385)	-6.569 † (3.982)	-12.007 † (5.683)	-7.568 * (3.169)
퇴근시간 ×여성	-0.195 *** (0.055)	-0.080 † (0.048)	0.036 (0.035)	0.073 (0.052)	0.060 * (0.029)
LR test	85.54 ***	7.35 **	0.71	2.32	7.23 **

주 1) 괄호는 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표 4]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였지만, 지면을 고려하여 관련 변수의 회귀계수 및 표준오차, 유의수준만을 제시하였음.

3) LR test는 Likelihood Ratio test 결과를 의미함.

3)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반면, 개인유지 모형에서는 여성(-0.125=-0.185+0.060)이 남성(-0.185)에 비해 부적관계가 약하게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는 일과 후 생활에서 개인유지에 약 7.6분 정도를 남성보다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여성이 남성과 개인유지에 비슷한 시간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근시간이 126.1분(=7.568/0.060) 정도 더 빨라야 한다. 적극적, 소극적 여가의 모형에서도 여성 근로자가 남성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족 관련 범주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부담이 다른 생활 범주에서의 시간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퇴근시간의 조절은 개별 근로자의 범주별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젠더로 인한 생활시간 차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평일 일과 후 생활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퇴근시간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근로자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간대

를 대상으로 한 SUR 분석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시간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퇴근 시간대별 SUR 분석에서는 범주에 따라 퇴근시간과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가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야근 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 비해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젠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과 후 생활시간에서의 젠더 격차가 모든 범주에서 나타난다는 점과,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가 가사와 돌봄, 개인유지에서의 젠더 격차를 일정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퇴근시간의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정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후 생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일-생활의 균형이 시대와 장소 및 개별 상황에 따라 균형 지점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논의의 시작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적인 생활패턴에 가까운 근로자 집단의 일과 후 생활시간 구성을 살펴보고, 이들 집단이 가사와 돌봄 관련 범주에서 상당한 시간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에 추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논의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와 함께, 새로운 균형지점을 찾기 위한 논의의 출발지점이 될 수 있다.

둘째, 퇴근시간의 조정이 일과 후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근로자의 퇴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늦은 시간까지의 야근을 줄이는 방식의 변화는 적극적 여가시간의 확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주로 소극적 여가와 개인유지 관련 활동을 늘리고, 가족 관련 시간을 미미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의 변화는 전일제 근로자가 일과 후에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퇴근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차원에서는 유연근무제 등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퇴근시간의 조정이 생활시간 범주에서의 젠더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을 보여주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퇴근시간이 일과 후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일과 후 생활시간의 증가가 곧 일-생활 균형의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성 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의 비중을 늘

려 시간사용을 여성화하고(Esping-Andersen, 2009),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을 차별 대우하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퇴근시간이 앞당겨지더라도 일과 후 생활시간에서의 젠더 격차는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노력과 함께 젠더 격차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방법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퇴근시간’이라는 하루 일과에서의 특정 시점에 주목함으로써, 장시간 근로의 영향에만 주목한 선행연구들이 놓쳐온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일과 후 생활시간의 대부분은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퇴근 시점은 근로시간량 못지않게 일-생활 균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연구는 퇴근 시간대별 분석결과 비교를 통해서, 생활시간 범주에 따라 퇴근시간의 영향을 받는 시간대가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다수의 연구들이 근로시간과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다르게, 이 연구는 일과 후 생활시간을 하위범주들로 구분하여 근로시간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과 후 생활시간 배분을 보다 큰 그림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 연구는 특정 시간대에서의 생활시간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가진다. 일-생활 균형을 강조하는 논의가 ‘저녁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하루 전체의 생활시간 배분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온전히 포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별 일과에 맞춰서 일과 후 생활의 범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동일 집단의 퇴근시간 변화가 아닌 퇴근시간이 다른 근로자 사이의 차이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근로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유연해지는 상황에서,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은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일과 후 생활에서는 복수의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범주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동시행동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가족의 유지와 관련된 시간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여, 외벌이 근로자의 비근로 배우자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젠더의 조절효과만을 다루었지만, 가구유형이나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 다양한 변수들이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강은혜(2015).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른 기혼여성의 자녀양육시간과 가사노동시간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득(2003). 21세기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 김미경(2009). 일-가족 양립정책과 모성보호정책: '노동사회'를 넘어 '좋은 노동사회'를 위하여. 강이수 (편). 일·가족·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과주: 한울아카데미.
- 김소영(2016).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의 무급노동시간 변화와 관련요인: 1999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김은지(2007). 한국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 사회학. 8(1), 147-175.
- 김순미, 이경희, 성지미(2000). 기혼 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3, 219-240.
- 김승진(역) (2011). 8시간 vs 6시간: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 1930-1985. B. Hunnicutt, (1996). 서울: 도서출판 이후.
- 김승택(2005).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의 진전. 국제노동브리프. 3(10), 22-25.
- _____(2011).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근로문화의 선진화. 노동리뷰. 72, 1-3.
- 김영선(2010).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증감 논쟁에 대한 비판. 노동연구. 20, 121-145.
- _____(2013). 과로 사회. 서울: 이매진.
- 김유선(2008).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4(2), 1-21.
- 김은지(2011). 신사회 위협의 출현과 맞벌이가족의 삶의 질: 1999-2009년 시간사용 변화.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정경(2015).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한가: 한국 임금노동자의 생활시간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주희(2012).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욱, 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김현숙, 원종학(2004). 여성 노동공급과 조세, 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4-04. 한국조세연구원.
- 김형락, 이정민(2012).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5(3), 83-100.
- 김훈(2006). 지방 소도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대도시 소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마케팅과학 연구. 15(2), 203-225.

- 남기성, 김희재(2005). 취업자의 시간대별 행위자비율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 7(6). 31-54.
- 노용진(2014). 주40시간제의 고용효과. 산업관계연구. 24(2). 109-129.
-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97.
- 박미희, 변금선(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29-52.
- 박민정, 윤소영(2013).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자원 이용 및 여가활동 비교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4). 19-37.
- 박예송, 박지혜(2013).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2000년 이후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HRD연구. 15(1). 1-35.
- 박은정(201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노동정책연구. 13(4). 133-158.
- 박정열, 손영미(2014).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화: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 박태주(2009).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향과 전망. 76. 233-270.
- 박현미, 이승협(2009). 일과 생활균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 중앙연구원.
- 배규식(2012).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경제와 사회. 9. 128-162.
- _____ (2013).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리뷰. 103. 7-18.
- 배규식, 윤자영, 김기민, 조인경, 윤정향, 권현지, 임주리, 백다례(2013). 노동시간과 일·생활 균형. 한국노동연구원.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홑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 변금선, 허용창(2014).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101-125.
-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4). 1-29.
- 손문금(2005).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신경아(2009). 일-삶의 균형(work-life balance)과 노동시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 176-211.
- 안주엽, 이경희, 김현중, 오선정, 김주영, 김종숙, 김난숙(2015). 일과 행복(). 한국노동연구원.
-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 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28-62.
- 유소이, 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유재연(2016).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일 저녁 가족공유시간 영향요인: 요일별 퇴근시각, 귀가시각, 통근

-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3). 32-59.
- 윤소영(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자영(역) (2007).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경제학. Folbre, N.(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서울: 또하나의문화.
- 이길제(2011). 출퇴근시간의 차이에 따른 생활시간사용 변화분석: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이호진, 정민근(2010). 한국 성인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생활시간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508-515.
- 이상목(2001).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노동경제논집. 24(3). 13-38.
- 이숙진(2011).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49-83.
- 이순미(2014). 가구생계부양 유형의 변화와 여성 내부의 계층화. 한국여성학. 30(2). 1-52.
- 이승미, 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 이승현(2009). 근로시간 개념과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17. 115-143.
-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 29-54.
- 장수정(2007).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에 대한 쟁점들: 성(gender)과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생산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정책. 30. 219-238.
- 정우진, 김강식(2014). 근로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질서경제저널. 17(2). 69-87.
- 정형욱(2006).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여성학논집. 23(2). 39-76.
- 조미라, 윤수경(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4. 5-30.
- 조성호(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조윤기, 배규한(2001).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및 초과근로수당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동서경제연구. 12(2). 141-162.
- 주은선(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주은선, 김사현, 김민성(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400.
- 주은선, 김영미(2012).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34. 237-289.
- 주은선, 김영미(역)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Esping-Andersen, G.(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서울: 나눔의집.
- 차승은(2011).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제약: 건강행동의 선택 혹은 희생? 한국인구학. 34(2). 65-90.
- _____(2014). 유급노동시간, 시간압박감 그리고 휴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37(3). 25-52.

- 차승은, 은기수, 전지원·Fisher, K. (2015).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사용과 일·삶의 균형의 실태: 다국적시간 연구(MTUS)자료를 활용한 한국 기혼여성과 서구 7개국 기혼여성의 시간사용 비교. *통계연구*, 20(1), 24-48.
- 최종호(2016). 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 하는가?: 2007, 2012 대선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50(1), 295-323.
- 통계청(2015). *생활시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 _____(2016). 2015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하상우(2012).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노동리뷰*, 84, 27-37.
- 한준(2011). 일하는 시간의 유연화 및 다양화. *사회과학논집*, 42(1), 23-38.
- 홍석범(2013).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일·가족·여가생활 변화 분석. *금속연구원 이슈페이퍼*, 2013-11.
- 홍승표, 이지연(2010). 한국인의 생애주기별 작업영역에 대한 시간사용.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95-106.
- 황수경(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고용구조. *한국노동연구원*.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제 시행.” *연합뉴스*(2016. 3. 28.).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스웨덴 6시간 근무제 확산.” *한국일보*(2015. 11. 29.).
- “하루 6시간 노동제, 보리출판사의 실험: 4시 칼퇴근 ‘오후가 있는 삶’ ... 회사요? 잘 굴러갑니다.” *경향신문*. (2015. 6. 19.).
-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보고서.” *보도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6. 3. 15.).
- Bittman, M. (1999). Parenthood without penalty: Time use and public policy in Australia and Finland. *Feminist economics*, 5(3), 27-42.
- Box, E. & Tiao. C. (1973). *Bayesian inference in statistical analysis*. Addison-Wesley.
-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 Coltrane, S. & Adams, M. (2008). *Gender and famili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Craig, L. (2006). Parental education, Time in paid work and time with children: An Australian time-diary analysi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7(4), 553-575.
- Craig, L. & Mullan, K. (2010). Parenthood, gender and work-family time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Italy, France,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344-1361.

- Craig, L. & Powell, A. (2011). Non-standard work schedules, work-family balanc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childcare.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2), 274-291.
- Crompton, R. (2006). *Employment and the fami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 Nallo, A. (2015). Parental education and time allocation of child care: Evidence from the Spanish Time-Use Survey.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15 Annual Meeting, 4.30-5.2 2015. San Diego, CA.
- Dufour, J. & Khalaf, L. (2002). Exact tests for contemporaneous correlation of disturbances in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Journal of Economics* 106, 143-170.
- Elias, N. (1986). Leisure in the spare time spectrum. N., Elias & E., Dunning(eds). *Quest for excitement: Sport and leisure in the civilizing process*. Blackwell.
-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 Ettner, S. L. (1996). New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5(1), 67-85.
- Fisher, K. & Layte, R. (2002). *Measuring work-life balance and degrees of sociability: A focus on the value of timeuse data in the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EPAG Working Papers 2002-32.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 Work and leisure in post 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 _____(2003). *Time, through the lifecourse, in the family*. Working Papers of the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paper 2003-3.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 Guest, E. (2002).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work-life bala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41(2), 255-279.
- Greene, H. (2005). *Econometric Analysis*. Fifth edition. Person Education.
- Greenhaus, J. & Beutel, N.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Greenstein,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2), 322-335.
- Hian, C. & Einstein, W. (1990). Quality of work life(QWL): What can unions do? *Advanced Management Journal* 55(2), 17-22.
- Hochschild, A. & Machung, A. (1989). *The second shift*. A Landmark Work.
- Hochschild, R. (2000). *The time bind*. New York: A Holt paperback.
- Hyman, J. & Summers, J. (2004). Lacking balance? Work-life employment practices in the modern economy. *Personnel Review*, 33(4), 418-429
- Jacobs, J. & Gerson, K. (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mel, J. & Connelly, R. (2007). Mother's time choices: Caregiving, leisure, home production, and paid work.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3), 643-681.
- OECD. (2016).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Accessed on 12 September 2016)
- Percy, F. (1992). Prediction fo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54*(1), 243-252.
- Press, J. (1972). *Applied multivariate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 Sawatzky, E. & Fowler-Kerry, S. (2003). Impact of caregiving: Listening to the voice of informal caregiver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277-286.
- Schor, J.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 Shank, S. (1986). Preferred hours of work and corresponding earnings. *Monthly Labor Review*, *41*, 40-44.
- Stabile, M., Laporte, A. & Coyte, C. (2006). Household responses to public home care program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5*(4), 674-701.
- Zellner, A.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298), 348-368.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Quitting Time and Subsequent Time Allocation of Full-time Workers in Korea

Lee, Seungho* · Park, Mijin**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quitting time and subsequent time allocation of full-time workers with young children. First, as a result of sub-group difference analysis of subsequent time allocation by quitting time, the group who finished their work early used their additional time mostly for housework and care work. And if the workers finish their work late, they decreased their housework and active leisure time first, and then supplementally reduced their care work and passive leisure time. In addition, SUR analysis showed that as the workers finish their work earlier, the proportion of housework, care work and active leisure among five activities was getting higher. Last but not least, it was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itting time and the subsequent time allocation was moderated by gender in housework, care work, and regenerative activit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bate on work-life balance of workers' by providing the concrete and detailed results.

Key Words: long working hour, work-life balance, quitting time, gender

◆ 2017.1.16. 접수 / 2017.3.14. 1차수정 / 2017.3.20. 게재확정.

* First Auth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bab57@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mijin1030@daum.net).